

# 1940년 재일조선인의 지역별 취업구조

국세조사통계원표의 분석을 중심으로 \*

정진성

## 1. 머리말

1940년 국세조사통계원표<sup>1</sup>를 분석해 재일조선인의 지역별 취업구조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과제다. 필자는 동일한 자료를 이용해 재일조선인 취업자 전체의 산업별, 직업별, 연령별, 성별 구성을 분석한 바 있는데,<sup>2</sup> 이 글은 그 후속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단, 여기서는 지역별 재일조선인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만을 분석하며, 직업별, 연령별 구성은 분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

---

**정진성(丁振聲)** 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동 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重要産業統制法下における石炭獨占組織の市場統制政策」(『社会経済史学』第59卷 第4号, 1993), 「高度経済成長期の石炭産業調整政策: 生産維持と雇用調整を中心に」(『社会経済史学』第72卷 第2号, 2006), 「재벌비판을 통해서 본 일본의 반기업정서」(『日本研究論叢』 제27호, 200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일본경영사』(한울, 2001)가 있다.

\* 이 연구는 재단법인 이희건한일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1 総理府統計局, 「昭和15年 国勢調査統計原票 第21表(内地全体)」(「産業(小分類), 職業(小分類), 年齢にわけたる内地在住朝鮮人」), 1940.

2 정진성, 「1940년의 재일조선인 취업구조: 국세조사통계원표의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13집, 2017.

는 지역마다 직업별, 연령별로 원표자료를 집계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며,<sup>3</sup> 정진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면 지역별의 직업별, 연령별 구성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40년의 국세조사통계원표를 이용한 선행연구로는 기무라 겐지(木村健二)<sup>4</sup>와 이와사 가즈유키(岩佐和幸)<sup>5</sup>의 연구가 있다. 전자는 시모노세키시(下関市) 재일조선인 고물상을 분석한 것이며, 후자는 오사카시(大阪市)의 재일조선인의 취업구조를 밝힌 것으로, 국세조사통계원표를 이용하여 지역별 취업구조의 특징을 비교한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의 지역별 취업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내무성 자료와 각 지방자치체의 자체 조사자료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왔다.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sup>6</sup>는 내무성 자료를 이용하여 재일조선인 직업구성의 도부현(道府県)별 특징으로 ① 탄광이 있는 홋카이도(北海道)와 후쿠오카현(福岡県)에는 광업노동자가 많다, ② 도쿄(東京)에는 이른바 유식적(有識的) 직업의 비율이 높다, ③ 오사카부(大阪府)에는 섬유, 화학 금속공업, 교토부(京都府)에는 섬유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눈에 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체의 사회조사를 검토하여, ① 오사카시 공장노동자 중 여성은 방직공, 남성은 유리공과 금속, 고무 관련 종사자가 많고, ② 교토시에는 토건노동자에 이어 방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중 '염색업 및 그에 부속되는 증업·수세업(蒸業·水洗業)' 등이 약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3 이 국세조사원표는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이며 일본의 통계도서관(국립국회도서관의 지부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열람이 가능하다. 원표의 각 페이지에는 산업 소분류 항목에 관해 직업 소분류별 인원 수가 연령별(12세 이하에서 60세 이상 사이를 1세별로 기재), 남녀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 페이지 분의 내용을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에 기입할 경우, 기입해야 할 셀의 수가 1,000개를 넘게 된다. 물론 1,000개의 셀에 모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원표의 수치를 계수 작업하기 위해 스프레드 시트에 기입하는 데에는 다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4 木村健二, 「在日朝鮮人古物商の成立と展開」, 李洙任 編著, 『在日コリアンの經濟活動: 移住労働者, 企業化の過去・現在・未来』, 不二出版, 2012.

5 岩佐和幸, 「戦前期大阪の都市形成と朝鮮人移民労働者」, 政治経済学・経済史学会, 『歴史と経済』 187호, 2005.

6 도노무라 마사루, 신유원·김인덕 옮김,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사학적 연구』, 논형, 2010, 101쪽(外村大, 『在日朝鮮人社会の歴史学的研究: 形成・構造・変容』, 録陰書房, 2004).

③ 아이치현(愛知県) 도요하시(豊橋) 지방에는 섬유공업, 세토(瀬戸) 지방에서는 요업(窯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도노무라의 연구는 도부현별의 일반적인 특징을 지적하고 있을 뿐, 시기별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체 조사는 주로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중반에 관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역시 내무성 자료를 이용하여 제일조선인의 직업구성을 검토한 니시나리타 유타카(西成田豊)는 시기별 직업구성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제일조선인의 직업구성이 1920년에서 1930년대 중반 사이에 토공 중심에서 공업·상업 중심으로 변화했음을 보이고, 지방자치체 등의 조사를 이용하여 1930년대 중반의 지역별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sup>7</sup>

① 오사카부의 공장노동자는 화학공업(유리공업 포함), 금속·기계기구공업, 섬유공업의 세 업종의 노동자가 전체 공장노동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금속·기계기구공업 노동자의 증가가 현저했고, ② 고베시(神戸市)는 화학공업노동자(대부분은 고무공업)의 비중이 높았으며, ③ 교토시에서는 섬유공업노동자가, ④ 도쿄부에서는 화학공업노동자가 가장 많았으나 고베시와는 달리 유리공업노동자가 다수였으며, ⑤ 후쿠오카현 공장노동자의 중심은 금속·기계기구공업 노동자였는데, 그들 중 다수는 야하타(八幡)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추측된다.

전시경제로 이행하는 1930년대 중반에서 1942년 사이에는 광업 부문의 취업자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 반면, 토목건축업, 공업, 상업 비율이 감소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후쿠오카의 광업 비율 격증, 오사카, 도쿄에서의 공업 비율 증가, 모든 도부현에서의 상업 비율 감소와 학생 비율 증가, 도쿄와 교토의 높은 학생 집중도를 지적했다.<sup>8</sup>

7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東京大学出版会, 1997, 121~124쪽.

8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207쪽.

이상과 같은 도노무라와 니시나리타의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취업구조에 대해 이미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선행연구가 이용하고 있는 내무성 자료는 농업, 어업, 상업과 같은 산업적 분류와 유식적 직업, 직공과 같은 직업적 분류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산업별 취업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40년 국세조사는 산업 분류와 직업 분류가 명확히 분리되어 실시된 최초의 국세조사였기 때문에,<sup>9</sup> 정확한 산업별 취업구조의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선행연구의 직업구성 분류는 산업 대분류 내지는 중분류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1940년 국세조사 자료는 497개 산업 소분류 항목에 대해 439항목의 직업 소분류에 대해 연령별로 파악하고 있어, 재일조선인이 취업하고 있던 업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2. 인구의 도부현(道府縣)별 분포

1940년 재일조선인 인구는 124만 1,315명이었는데, 이 글이 검토 대상으로 하는 홋카이도, 도쿄부,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兵庫県), 후쿠오카현의 8개 도부현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은 86만 372명으로 전체 재일조선인의 69.3%에 해당한다(표 1).<sup>10</sup> 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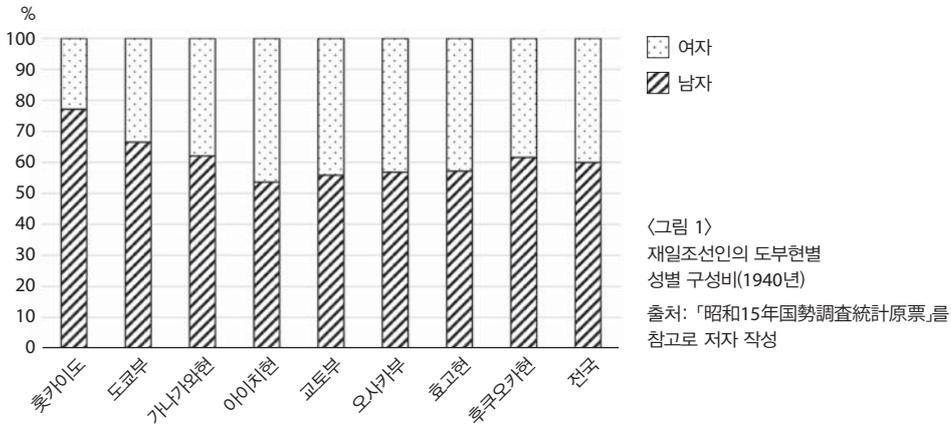
〈표 1〉 재일조선인의 도부현별 인구(1940년)

	재일조선인 인구		조선인 인구비율(%)
	(명)	(%)	
홋카이도	43,098	3.5	1.3
도쿄부	106,387	8.6	1.4
가나가와현	30,714	2.5	1.4
아이치현	84,094	6.8	2.7
교토부	72,771	5.9	4.2
오사카부	298,574	24.1	6.2
효고현	108,491	8.7	3.4
후쿠오카현	116,243	9.4	3.8
전국	1,241,315	100.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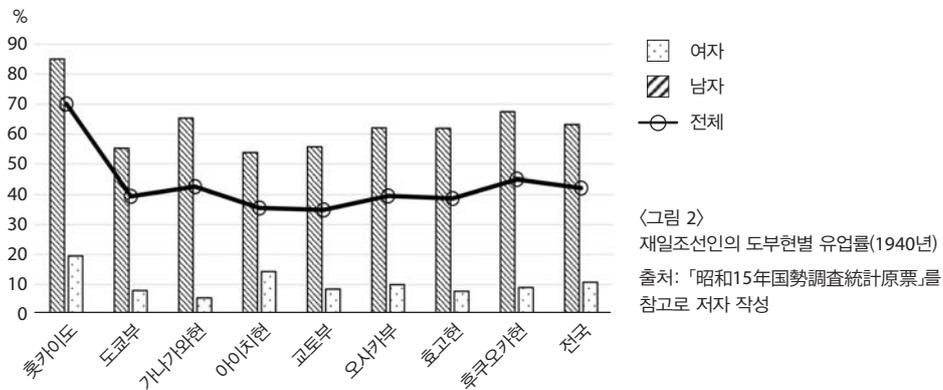
주: 조선인 인구비율은 전 인구에 대한 재일조선인 인구 비율  
출처: 『昭和十五年国勢調査報告』, 『昭和十五年国勢調査統計原票』를 참고로 저자 작성.

9 佐藤正広, 『国勢調査 日本社会の百年』, 岩波書店, 2015.

10 1940년 당시, 재일조선인 인구가 많은 순서로 보면, 야마구치현(山口県)이 5위, 히로시마현(広島県)이 8위지만, 이 두 현은 이 글에서 검토하지 못했다.



〈그림 1〉  
재일조선인의 도부현별  
성별 구성비(1940년)  
출처: 「昭和15年国勢調査統計原票」를  
참고로 저자 작성



〈그림 2〉  
재일조선인의 도부현별 유업률(1940년)  
출처: 「昭和15年国勢調査統計原票」를  
참고로 저자 작성

24.1%에 해당하는 29만 8,574명이 거주하고 있던 오사카부의 존재가 압도적이었다. 이것은 1939년의 조선의 평양부 인구 22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오사카부 다음으로 후쿠오카현, 효고현, 도쿄부, 아이치현, 교토부,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순으로 많다. 참고로 전체 인구에 대한 조선인의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1.7%였지만, 오사카부 6.2%, 교토부 4.2%, 후쿠오카현 3.8%, 효고현 3.4% 등 지역적인 집중이 관찰된다.

1940년의 재일조선인을 성별로 보면 전국 평균으로는 남자 60%, 여자 40%지만, 홋카이도, 도쿄부, 가나가와현, 후쿠오카현은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낮았다(그림 1). 특히 홋카이도의 여성 비율은 22.8%로 다른 부현에 비해 대단히 낮았다. 유업률<sup>11</sup>은 전국 평균이 42.2%인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그림 2). 홋카이도(70.1%)가 돌출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후쿠

오카현, 가나가와현이 높다. 유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교토부, 아이치현이다.

이와 같은 성별 비율이나 유업률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지표들이 각 지역의 취업구조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2</sup>

### 3. 부현별 취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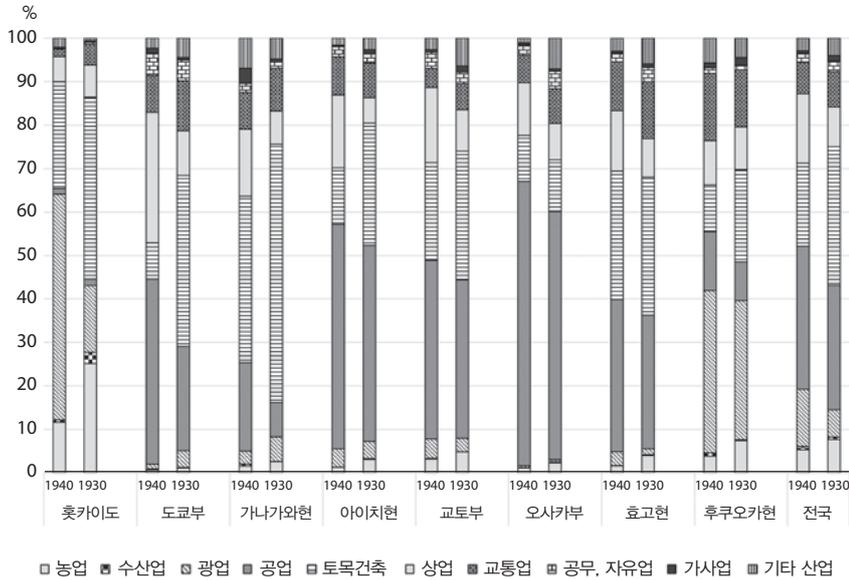
각 부현별 취업구조를 상세하게 보기 전에 우선 취업구조의 부현별 특징을 산업 대분류별 유업인구 비중을 통해 개괄해보기로 한다.

재일조선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산업 부문은 광업, 공업, 토목건축업, 상업, 교통업인데, 이 다섯 부문 중에서 공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오사카부, 도쿄부, 아이치현, 교토부, 효고현이다(그림 3). 특히 재일조선인의 최대 거주지인 오사카부의 공업 비중은 단연 높아서 65.4%였는데, 전체 공업 부문 취업자의 약 45%가 오사카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토목건축업의 비중은 홋카이도, 가나가와현, 교토부, 효고현이 높은 편인데 특히 가나가와현은 40%에 달한다. 반면 도쿄부는 8.3%, 오사카부는 10.6%에 불과하다.

상업은 도쿄부가 30.0%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교통업은 효고현, 후쿠오카현이 높다. 광업 비중은 홋카이도와 후쿠오카현이 높으며,

11 1940년의 국제조사에서는 유업자의 조사를 평상의 직업 유무에 의해 전 인구를 유업자와 무업자로 구분하는 이른바 '유업자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전후 조사에서 보이는 조사기일 전 1주간의 상태에 의해 노동력과 비노동력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유업인구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고 연소의 유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도 전후의 노동력인구와 다르다(『昭和15年 国勢調査報告』의「用語の解説」참조). 따라서 유업률은 전 인구에 대한 유업자의 비율로 계산한다. 이 글에서의 취업자는 유업자의 의미다.

12 유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취업구조 외에 학생의 존재가 있다. 도쿄부의 낮은 유업률은 높은 학생 비율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도쿄부의 학생·생도의 재일조선인 전체 인구에 대한 비율은 14.1%에 달하는데 이것은 평균 2.1%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며, 전체 학생·생도의 56.9%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었다. 도쿄부의 학생 중에서 여성은 9.5%에 불과한데, 도쿄부의 여성 비율이 33.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는 높은 학생 비율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 재일조선인의 도부현별 취업구조(산업 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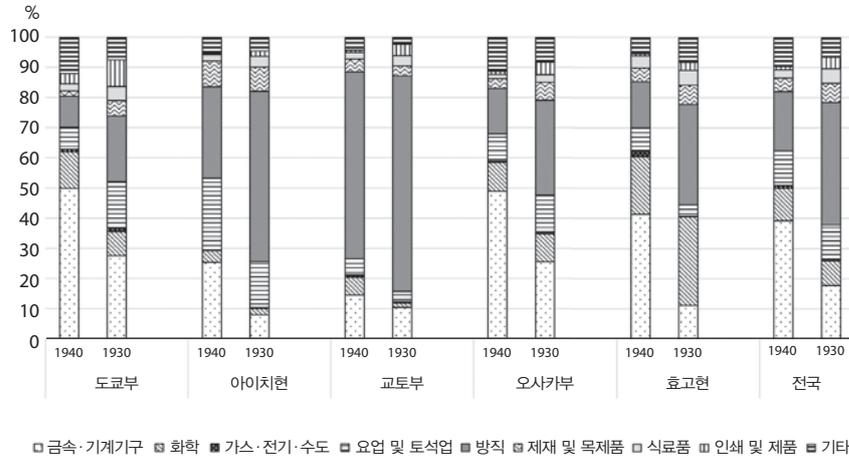
출처: 『昭和15年国勢調査統計原票』, 『昭和五年国勢調査報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전체 광업 부문 취업자의 22.7%, 28.4%가 홋카이도와 후쿠오카현에 집중되어 있었다.

1930년과 비교해보면,<sup>13</sup> 대개의 부현에서 공업과 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토목건축업의 비중이 감소했으며, 홋카이도와 후쿠오카현은 광업 부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공업 부문 취업자의 비중이 30%가 넘는 도쿄부,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의 공업 부문의 구성을 비교한 것이 〈그림 4〉다. 이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금속·기계기구, 방직공업, 화학공업, 요업 및 토석업의 비중이 큰데, 도쿄부, 오사카부, 효고현은 금속·기계기구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으

13 1930년 국세조사의 산업별 분류는 직업별 소분류 항목을 산업별로 묶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업별 분류라고 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1940년 국세조사의 산업별 분류와의 비교를 위해서 몇몇의 직업 소분류 항목의 분류를 1930년 국세조사와 달리했다. 그 내용은 〈표 3〉의 주를 참고할 것.



〈그림 4〉 재일조선인의 지역별 공업 부문의 업종별 구성비

출처: 「昭和15年国勢調査統計原票」, 「昭和五年国勢調査報告」를 참고로 저자 작성

며, 아이치현과 교토부는 방직공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외에 아이치현의 요업 및 토석업, 효고현의 화학공업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이 눈에 띈다.

1930년과 비교해보면, 금속·기계기구 부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방직공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토부는 방직공업 비중의 감소와 금속·기계기구 비중의 증가가 모두 소폭에 그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화학공업은 전국 평균으로 보면 소폭 증가했지만 효고현에서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요업 및 토석업은 전국 평균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데, 아이치현에서는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공업 부문 주요 업종 취업자의 지역별 집중도를 보면, 모든 업종이 오사카부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특히 금속공업(60.7%)과 기계기구공업(50.3%) 취업자의 집중도가 높았다(표 2). 화학공업의 취업자는 오사카부, 도쿄부, 효고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세 지역이 화학공업 전체 취업자의 약 65%를 차지했다. 방직공업의 취업자는 오사카부, 아이치현, 교토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세 지역이 방직공업 전체 취업자의 약 68%를 차지했다. 요업 및

〈표 2〉 재일조선인 유업자의 공업 부문 업종별 지역 집중도

(단위: %)

	홋카이도	도쿄부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교토부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전국
금속	0.1	9.6	1.8	4.6	1.9	60.7	9.3	5.4	100
기계기구	0.3	17.5	2.9	7.2	2.6	50.3	8.6	1.8	100
화학	0.1	11.6	2.1	3.2	3.3	39.4	15.1	4.9	100
가스	0.2	8.7	4.6	2.5	10.2	41.0	12.5	6.7	100
전기 및 수도	1.0	9.9	3.0	2.3	3.6	12.0	19.0	11.0	100
요업 및 토석업	0.3	6.6	0.8	18.8	2.8	35.6	5.6	9.5	100
방직	0.1	5.4	1.1	13.8	19.1	34.6	6.7	1.3	100
제재 및 목제품	0.8	4.2	0.5	17.0	5.7	31.2	8.6	3.1	100
식료품	0.7	8.8	1.7	7.1	4.9	23.4	12.4	8.8	100
인쇄 및 제본	0.3	33.6	0.7	2.6	4.2	40.1	5.5	4.9	100
기타	0.3	12.9	0.9	5.1	2.7	53.1	4.8	2.6	100
공업 전체	0.2	10.4	1.6	9.0	6.1	44.9	8.5	4.1	100

출처: 「昭和15年国勢調査統計原票」를 참고로 저자 작성

토석업의 경우, 오사카부, 아이치현의 두 지역의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약 54%를 차지했다.

이하에서는 각 도부현별로 재일조선인의 취업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보기로 한다.

## 1) 오사카부<sup>14</sup>

재일조선인의 최대 거주지역인 오사카부는 재일조선인 인구의 24.1%, 유업자의 22.6%를 차지하고 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 부문의 비중이 65.4%에 달했는데, 이는 공업 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약 45%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업 부문 다음으로는 상업(12.1%), 토목건축업(10.6%)에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표 3).

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과 기계기구공업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으며(전체 공업 취업자의 49.0%, 이하 동일), 방직공업(15.1%), 기타 공업(11.5%), 화학공업(9.5%)의 비중도 크다. 이 부문 취업자는 금속공업에서는 철정련업 및 재료품제조업, 철주물업, 볼트·너트제조업, 금속판제품제조업 등이, 기계기구공업에서는 절삭연마용 금속공작기계제조업, 공구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포탄·탄환·병기류제조업 및 강선(鋼船)제조업과 같은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재일조선인도 많았음이 주목된다.

방직공업에서는 재봉업과 메리야스 관련 업종, 요업 및 토석업에서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화학공업에서는 고무제품제조 및 셀룰로이드제품제조업, 기타 공업에서는 혁화(革靴)제조업, 도장(塗裝)업, 종이제품제조업과 같은 잡업 부문에 재일조선인이 많이 취업해 있었다.

금속 및 기계기구, 화학, 방직, 요업·토석업 부문은 이미 1930년에도 재일조선인의 주요 취업 부문이었는데, 특히 기계기구공업의 증가가 주목된다. 1930년의 금속·기계기구공업의 주요 업종은 주로 금속 부문이었는데 1940년에는 기계기구공업 분야의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고무제품제조

14 오사카시의 재일조선인 취업 상황에 대해서는 국세조사통계원표를 분석한 이와사의 연구(岩佐和幸, 「戦前期大阪の都市形成と朝鮮人移民労働者」, 政治経済学・経済史学会, 『歴史と経済』 187호, 2005)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 부문에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둘째, 노동집약적 부문, 도시 잡업 부문, 토목건축 부문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기계 부문의 비중이 높다. 이 외에 요리집·음식점업과 같이 이주자의 증대에 수반하는 민족 부문에서의 생활 관련 업종의 확대가 보이고 있다. 셋째, 집꾼이나 급사, 견습공 같은 보조적 작업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 중노동이나 위험을 동반하는 노동자 비중이 크며, 여성의 경우 미싱공이나 양재사와 같은 방직 관련 노동자의 비중이 크다. 넷째, 경영자층이 출현하고 있다.



업, 유리제조업, 재봉 및 재단업 등은 1930년에도 재일조선인의 주요 업종이었다. 방직공업의 경우, 1920년대에 방직업에 가장 많은 재일조선인이 취업하고 있었던 것<sup>15</sup>과는 달리 재봉업이나 메리야스 업종에 다수의 재일조선인이 취업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공업 부문 다음으로 많은 재일조선인이 취업하고 있던 상업 부문에서는 고물상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채소류판매업이나 신문발행판매업의 종사가 많은 것은 대소비도시로서의 오사카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철재, 강제 판매업은 이른바 고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전시 경제에 따른 철강류 수요의 증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업에서는 기타 육상운수업, 화물자동차운송업의 취업자가 많은데, 기타 육상운수업 취업자의 대부분과 화물자동차운송업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 되는 집꾼이다.<sup>16</sup>

## 2) 도쿄부

일본 최대의 인구집중지역인 도쿄부는 재일조선인 인구의 8.6%, 유업자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 부문의 비중이 42.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상업(30.0%), 교통업(8.5%), 토목건축업(8.3%), 공무·자유업(5.2%)에 많이 취업해 있었다. 상업의 비중이 큰 것과 토목건축업의 비중이 작은 것이 특징이다(표 4).

공업 부문에서는 오사카부와 마찬가지로 금속·기계기구공업의 비중이 단연 높으며(전체 공업 부문 유업자의 49.8%), 다음으로 화학공업(12.1%), 기타 공업(12.1%), 방직공업(10.2%) 순으로 비중이 크다.

금속공업에서는 금속판제품제조업, 철정련업 및 재료품제조업 등이, 기

15 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97~99쪽.

16 집꾼은 직업별 분류 항목으로는 '하급부(荷扱夫), 집꾼(仲仕 나카시), 창고부(倉庫夫), 운반부(運搬夫), 배달부(配達夫)'에 해당되는 취업자를 말한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기타 육상운수업에서는 취업자의 0.5%만이 운전수이며, 82.9%가 집꾼이다. 화물자동차운송업 취업자의 경우는 운전수의 비율이 49.5%, 집꾼이 42.7%였다.



계기구공업에서는 전구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 공구제조업의 비중이 높다. 항공기부분품 및 부속품제조업, 포탄·탄환·병기류제조업과 같은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재일조선인도 많았음이 주목된다.

방직공업 부문에서는 재봉업, 요업 및 토석업 부문에서는 유리제품제조업, 화학공업 부문에서는 고무제품제조 및 제혁업, 기타 공업에서는 혁화(革靴)제조업, 조리(草履)제조업과 같은 잡업 부문에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금속 및 기계기구, 화학, 방직, 요업·토석업 부문은 이미 1930년에도 이 지역 재일조선인의 주요 취업 부문이었는데, 특히 기계기구 부문의 증가가 주목된다. 화학공업에서는 고무제품제조업, 요업 및 토석업에서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방직공업에서는 재봉업 및 재단업 등이 주요 업종이었는데, 1930년과 비교하면 화학공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방직공업 부문과 요업 및 토석업 부문의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도쿄부의 공업 부문 취업 상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쇄업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으로 이 업종의 취업자 수 비율은 1.0%지만 도쿄부에서는 3.3%에 이른다. 특히, 전체 인쇄업 취업자의 32.2%가 도쿄에 집중되어 있었다.<sup>17</sup>

도쿄부 재일조선인 취업구조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상업 부문의 높은 비율이다. 도쿄부를 제외한 다른 도부현 중에서 상업 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교토부가 17.2%에 불과한데 도쿄는 30%에 이르고 있다. 상업 부문에서 고물상과 함께 신문발행판매업 취업자가 많은 것이 주목된다. 신문발행판매업 취업자의 대부분은 배달부와 급사 등이다. 도쿄부의 신문발행판매업자는 3,495명으로 동업종에 종사하는 재일조선인 유업자 전체의 66.9%에 달한다. 요리점, 음식점과 우유판매업종사자가 많은 것은 대소비도시로서의 도쿄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유판매업의

17 인쇄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오사카부로 전체 인쇄업 취업자의 37.6%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사카부 공업 부문 취업자의 1%에 미달한다.



경우 전체 취업자의 약 48%가 도쿄부에서 취업하고 있었다. 철재·강재판  
매업과 기타 금속재료판매업은 전시경제에 따른 철강·금속류 수요의 증대  
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통업에서는 다른 도부현에 비해 여객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업은 다른 교통업 업종에 비해 운전  
수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sup>18</sup> 도쿄의 교통업 종사자 중에는 운전수의 비중이  
클 것으로 추측되는데, 1930년에도 운전수가 교통업 종사자의 25.9%였다.

도쿄부의 재일조선인 취업구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무·자유업(公務自  
由業)의 비중이 다른 도부현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적  
으로 재일조선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청소업, 이용·이발, 욕장(浴場)과 같  
은 분야의 취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 도쿄부의 공무·자유업 취  
업자 중에서 이 세 업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7.5%인데 전국 평균은  
54.8%다.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무직이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컸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이 도쿄부에 전문직 종사자가 많았음을 반  
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자유업 중에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보면, '기타 작업자,' '짐꾼', '급사'와 같이 주변  
잡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 3) 효고현

효고현에는 재일조선인의 8.7%에 달하는 10만 8,491명이 거주하고 있었으  
며, 그중 유업자 수는 4만 1,978명(전체 재일조선인 유업자의 8.0%)이었다. 유업  
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 부문(35.0%)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토목건축업(29.6%), 상업(13.9%), 교통업(11.2%)이 크다(표 5).

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기계기구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공업 부문 유업  
자 수의 41.4%, 이하 동일), 다음으로 화학공업(19.1%), 방직공업(15.3%), 요업 및

18 전국 평균으로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업 취업자 중 88.2%가 운전수다.



토석업(7.5%) 순으로 비중이 크다.

금속공업에서는 철정련업 및 재료품제조업, 선철주물업, 금속판제품제조업에, 기계기구업종에서는 강선제조업, 포탄·탄환·병기류제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강선제조업, 포탄·탄환·병기류제조업과 같은 군수산업 분야의 취업자가 기계기구업종 취업자의 32%나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화학공업에서는 고무제품제조업, 광물질 및 배합비료제조업, 성냥제조업의 취업자가 많은데, 특히 고무제품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전체 고무공업 취업자에 대한 효고현 고무제품제조업 취업자의 비율은 25.5%로 오사카부의 45.6% 다음으로 높았다. 방직공업에서는 재봉업 취업자가 가장 많은데 면직물제조업이나 면사방직업 취업자도 상당수 있었음이 눈에 띈다. 요업 및 토석업에서는 유리제품제조업과 벽돌 및 내화물제조업 취업자가 많았다.

금속·기계기구공업은 1930년에는 전체 유업자의 불과 3.5%(공업 부문 취업자의 11.3%)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나 1940년에는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화학공업과 방직공업은 1930년에도 제일조선인의 주요 취업 부문이었는데, 1940년에는 이 업종의 취업자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기계기구업종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율은 하락했다.

상업 부문에서는 고물상, 요리점·음식점업의 비중이 크며, 교통업에서는 기타 육상운수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공무·자유업에 798명이 취업하고 있지만, 육장업(370명)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 4) 아이치현

아이치현에는 제일조선인의 6.8%에 달하는 8만 4,094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유업자 수는 2만 9,860명(전체 제일조선인 유업자의 5.7%)이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 부문(51.7%)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것은

오사카부의 65.4%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 상업(16.7%), 토목건축업(13.0%), 교통업(8.8%)이 크다(표 6).

공업 부문에서는 방직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공업 부문 유업자의 30.2%, 이하 동일), 다음으로 금속·기계기구업(25.4%), 요업 및 토석업(23.8%)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방직공업 부문에서 취업자가 많은 업종은 면사방직업, 제면업, 면직물 등과 같이 면방직업 관련 분야가 많으며 생사제조업에도 상당수가 취업하고 있었다. 특히 면사방직업은 전체 취업자의 49.1%가 아이치현에 집중되어 있었다. 재봉업이나 메리야스업의 비중이 큰 다른 지역과 차이나는 점이다.

요업 및 토석업의 내용을 보면 도자기제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그다음으로 유리제조와 벽돌 및 내화물제조업 등의 비중이 컸다. 재일조선인 도자기제조업 취업자의 55.6%가 아이치현에 집중되어 있었다.

방직공업과 요업 및 토석업은 이전부터 이 지역의 재일조선인의 주요 취업 부문이었는데, 1930년의 국세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일조선인 유업자에 대해 각각 25.4%,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지방자치체에 의한 조사에서도 도요하시(豊橋) 지역의 제사공업, 세토(瀬戸) 지역의 도자기 공업에 재일조선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sup>19</sup> 그러나 방직공업 부문의 유업자 수는 1930년에 비해 900명 가까이 감소하여 그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이것은 전시경제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방직공업과는 달리 금속·기계기구공업의 취업자는 크게 증가했다. 1930년의 이 부문 취업자는 3.6%에 불과했으나 1940년에는 13.1%(금속 5.7%, 기계기구 7.4%)로 증가했다. 특히 항공기부분품 및 부속품제조업, 총포·

19 名古屋地方職業紹介事務局, 『名古屋市を中心とする愛知県下在住朝鮮人労働者調査』, 1925; 名古屋地方職業紹介事務局, 『瀬戸地方における朝鮮労働者事情』, 1929. 이 자료들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제사업 관련 취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1930년의 국세조사에서도 제사업 관련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940년에는 면방직업 관련 취업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포탄·병기류제조업과 같은 직접 전쟁 수행과 관련되는 군수산업 분야의 취업자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상업 부문도 1930년에 비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 부문 취업자의 거의 절반은 고물상이었다. 교통업의 취업자 비중은 1930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는데, 기타 육상운수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이어 화물자동차운송업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무·자유업에 700명이 취업하고 있지만, 육장업(249명), 청소업(121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5) 교토부

교토부에는 재일조선인의 5.9%에 달하는 7만 2,771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유업자 수는 2만 5,398명(전체 재일조선인 유업자의 4.9%)이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공업 부문(41.1%)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토목건축업(22.5%), 상업(17.2%)이 크다. 교통업의 비중은 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공무·자유업의 비중(3.7%)이 도쿄부의 5.2% 다음으로 높다(표 7).

공업 부문에서는 방직공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공업 부문 유업자의 61.9%, 이하 동일), 다음으로 금속·기계기구업(14.5%), 화학공업(5.9%), 요업 및 토석업(5.3%)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방직공업 부문의 유업자들은 주로 '염색 및 정리업'과 관련되는 업종(날염업, 표백 및 정리, 세탁 등)과 견직물제조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염색 및 정리업' 전체 취업자의 46.6%가 교토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업종은 교토의 전통적인 견직물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특히 유젠(友禪, 비단 등에 화려한 문양을 염색하는 기법)의 증·수세업(蒸·水洗業)에서 재일조선인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있었는데, 이 분야에는 1930년에도 이미 재일조선인이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sup>20</sup>

1930년에는 공업 부문 유업자의 10.4%를 차지하고 있었던 금속·기계



기구공업이 1940년에는 14.5%를 차지했는데, 총포·포탄·병기류제조업과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등이 비교적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던 업종이었다. 화학공업에서는 연마재료 및 연마용품제조업, 요업 및 토석업에서는 도자기와 석공품제조업 취업자가 많았다.

상업 부문도 1930년에 비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부문인데, 이 부문 취업자 4,371명의 약 43%가 고물상이었다. 이 외에 요리점·음식업점, 신문발행판매업, 채소류판매업에 200명대의 취업자가 있었다.

교통업의 취업자 비중은 1930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는데, 기타 육상운수업, 화물자동차운송업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무·자유업의 취업자 949명의 약 58%는 청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

## 6) 가나가와현

가나가와현에는 제일조선인의 2.5%에 해당하는 3만 714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유업자 수는 1만 3,107명(전체 제일조선인 유업자의 2.5%)이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토목건축업(40.0%)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공업(21.3%), 상업(16.1%), 교통업(8.8%)이 크다(표 8). 검토 대상의 부현 중에서 토목건축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나가와현뿐이다. 가나가와현의 비교적 높은 유업률(42.7%)과 남성 비율(62.1%)은 토목건축 부문의 종사자에 단신 남성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기계기구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공업 부문 유업자의 55.5%, 이하 동일), 다음으로 화학공업(14.0%), 방직공업(12.9%)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금속공업에서는 철정련업 및 재료품제조업, 기계기구공업에서는 강선

20 韓載香, 『『在日企業』の産業經濟史: その社会的基盤とダイナミズム』, 名古屋大学出版会, 2010, 75~77쪽. 교토의 전통산업에 종사했던 개별 제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로는 李洙任의 「京都西陣と朝鮮人移民」, 「京都の伝統産業に携わった朝鮮人移民の労働観」이 있다. 두 논문 모두 李洙任 編著, 『在日コリアンの經濟活動: 移住労働者, 起業家の過去・現在・未来』, 不二出版, 2012에 수록.



제조업,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1930년에 금속·기계기구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29명에 불과했으나, 1940년에는 1,55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토목건축업의 높은 비중은 가나가와현의 가장 큰 특징이다. 토목건축업의 취업자가 전 취업자의 거의 60%를 차지했던 1930년에 비해 1940년에는 20%포인트 가까이 그 비중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토목건축업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상업은 고물상의 비중이 약 51%로 압도적이었으며, 교통업에서는 기타 육상운수업 종사자가 가장 많았다.

#### 7)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에는 재일조선인의 9.4%에 해당하는 11만 6,243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유업자 수는 5만 2,331명(전체 재일조선인 유업자의 10.0%)이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광업(37.3%)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교통업(15.5%), 공업(13.5%), 토목건축업(10.8%), 상업(10.2%)의 비중이 크다(표 9). 후쿠오카현의 비교적 높은 유업률(45.0%)과 남성 비율(61.6%)은 광업 부문의 종사자에 단신 남성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업 부문의 취업자는 1만 9,544명이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인 94%가 석탄광업에 취업하고 있었다. 후쿠오카현에는 일찍부터 조선인이 광부로서 탄광에 취업했지만, 1939년의 전시노무동원이 시작되면서 석탄광업 취업자는 크게 늘었다.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1938년에 후쿠오카현 전체 재일조선인 취업자에 대한 광업 부문의 재일조선인 노동자의 비율이 13.0%였지만, 전시노무동원이 시작된 후인 1940년에는 8.4% 포인트가 증가한 21.4%가 되었다.<sup>21</sup>

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기계기구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공업 부문 유업자의 36.1%), 다음으로 요업 및 토석업(26.1%)의 비중이 크다. 금속·기계기구공업에서는 금속공업 부문인 철정련업 및 재료품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금



속·기계기구업 취업자의 약 63%를 차지했으며, 기계기구공업의 취업자는 많지 않았다. 철정련업 및 재료품제조업 취업자의 다수는 야하타제철소에 취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업 및 토석업에서는 시멘트제조업 종사자가 전체 요업 및 토석업 취업자의 약 48%를 차지했다.<sup>22</sup> 금속공업이나 요업 및 토석업 부문은 1930년에는 불과 수백명의 취업자밖에 없었던 산업 부문이었다.

상업에서는 고물상, 요리점·음식점업의 비중이 컸으며, 교통업에서는 기타 육상운수업의 종사자가 압도적이었다.

## 8) 홋카이도

홋카이도에는 재일조선인의 3.5%에 해당하는 4만 3,098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중 유업자 수는 3만 204명(전체 재일조선인 유업자의 5.8%)이었다. 유업자의 산업별 구성을 보면, 광업(51.9%)의 비중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토목건축(24.6%), 농업(11.7%) 순이다. 공업 부문은 1.4%에 불과하다(표 10). 홋카이도의 높은 유업률(70.1%)과 남성 비율(77.2%)은 광업 부문의 종사자에 단신 남성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광업 부문의 취업자는 1만 5,668명이었는데, 이들의 약 78%가 석탄광업에 취업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 금속광업에 약 18%가 취업하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광업 부문 취업자도 후쿠오카현과 마찬가지로 1939년에 전시노무동원이 시작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내무성 자료에 따르면 1938년에는 홋카이도의 재일조선인 취업자에 대한 광업 부문의 재일조선인 노동자

21 内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 1938, 1940.

22 당시 후쿠오카현에는 아사노세멘토(浅野セメント)의 모지(門司)공장(1893년 설립)과 아소(麻生)탄광 계열의 산교세멘토철도(産業セメント鉄道)의 다가와(田川)공장(1934년 조업 개시)에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었다. 1930년 국세조사에 재일조선인의 시멘트업 취업자가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재일조선인은 주로 산교세멘토철도의 다가와공장에 취업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소탄광에는 1차대전기부터 많은 재일조선인이 취업하고 있었으며, 1928년에는 아소탄광 산하의 세 탄광에서 254명의 조선인 광부가 일하고 있었다(西成田豊, 『在日朝鮮人の「世界」と「帝国」国家』, 105쪽).



비율이 6.2%였지만, 1940년에는 무려 38.6% 포인트가 증가한 44.8%가 되었다.<sup>23</sup>

홋카이도는 광업 외에도 농업 부문의 비중이 다른 부현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재일조선인은 도작, 삼림업, 두작(豆作), 약초재배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었다. 상업에서는 고물상, 요리점·음식점업의 비중이 컸다. 이 외의 산업 부문에는 취업자 수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 4. 맺음말

1940년의 재일조선인 취업구조를 1930년과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공업과 상업 부문의 비중 증대와 토목건축업의 비중 감소가 관찰되고, 지역별로 개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광업 부문의 취업자는 홋카이도와 후쿠오카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1939년의 전시노무동원의 개시 후 광업 부문 취업자가 급증했다.

공업 부문 취업자의 증대는 홋카이도를 제외한 부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인데, 특히 재일조선인의 최대 거주지역인 오사카부의 재일조선인 취업자의 65.4%가 공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었음은 인상적이다. 공업 부문 중에서도 금속공업과 기계기구공업 취업자가 크게 늘어 1940년에는 전 유업자의 12.9%를 차지했는데, 특히 오사카부, 도쿄부, 아이치현, 효고현에서의 증가가 현저하다. 그 세부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총포·포탄·병기류제조업(오사카, 도쿄, 교토, 아이치, 효고), 항공기부품제조업(도쿄, 아이치), 강선제조업(오사카, 효고)과 같은 군수산업 부문에의 취업자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이다. 전시경제의 진전에 따른 일본 산업구조의 변화가 재일조선인의 취

23 内務省警保局, 『社会運動の状況』, 1938, 1940.



업구조에도 반영되고 있었다. 이들 부문에 취업한 재일조선인 기술자는 극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잡역부와 같은 단순 노무자가 아닌 어느 정도의 기능을 익힌 노무자들이 소수나마 축적되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4</sup>

방직공업 부문은 1930년에 비해 그 비중은 감소했지만 1940년에도 전 유업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오사카, 아이치, 교토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주 업종이 달랐다. 오사카는 재봉업과 메리야스업, 아이치현은 면방직업, 교토는 염색 및 정리업과 견직물업의 비중이 컸다.

화학공업 부문은 193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1940년에는 전 유업자의 3.6%를 차지하고 있었다. 화학공업에서 가장 많은 재일조선인이 취업한 업종은 고무제품제조업으로 지역적으로는 오사카부, 도쿄부, 효고현에 많았다.

요업 및 토석업은 역시 193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여 1940년에는 전 유업자의 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아이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주업종은 도자기제조업이었다.

토목건축업 종사자의 비중은 1930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지만 1940년에도 여전히 1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적으로는 공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오사카 등에서 10% 이하인 반면, 가나가와현은 여전히 4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상업 부문의 유업자도 전 지역에 걸쳐 크게 늘었는데, 특히 도쿄부의 증대가 주목된다.

교통업의 비중은 193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1940년에는 7.3%였다.

24 전체 취업자 중에서 선반공[타레트(turret)공, 탁상선반공, 소형기계공, 보루반(boring machine)공, 평삭반(平削盤, planing machine)공, 형삭반(形削盤, shaping machine)공, 수삭반(豎削盤)공, 프레이스(fraise)반공, 치절반(齒切盤, gear cutting machine)공, 연마반공, 라프반(lapping machine)공의 합계]의 비율을 보면, 항공기부품제조업이 45.6%, 강선제조업이 6.1%, 총포·탄환·병기류제조업이 35.5%였다.



그 내용은 기타 육상운수업이 가장 많지만, 도쿄에서는 여객운송업의 비중이 커 운전수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역별 취업구조는 2차대전 이후의 재일조선인 취업구조의 기본틀을 형성했다. 일본의 전후 부흥기의 재일조선인 취업구조에 대해서는 국세조사와 같은 체계화되고 포괄적인 조사는 없으나, 단편적인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취업구조는 광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전의 취업구조와 관련이 깊다.<sup>25</sup>

앞으로의 과제로 우선 국세조사 등을 이용하여 전후의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의 포괄적이며 상세한 취업 상황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전전과 전후의 취업 상황을 연결시킴으로써 재일조선인이 전후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어떠한 모색을 하고 있었는지 전체적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각 지역별로 개별적인 산업 또는 기업의 연구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전전의 경험이 전후에 어떤 형태로 계승 내지는 활용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고무공업<sup>26</sup>이나 교토의 염색 및 정리업<sup>27</sup>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25 韓載香, 『在日企業』의産業經濟史, 43쪽.

26 고광명, 「일본의 고무공업과 재일제주인 기업가」,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편,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27 韓載香, 『在日企業』의産業經濟史; 李洙任 編著, 『在日コリアンの經濟活動』.

〈표 3〉 오사카부의 재일조선인 취업구조

		1940년				1930년				
산업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총수 (명)	산업	산업 대분류		총수 (명)	직업 소분류
	남(명)	여(명)	총수(명)	(%)			총수 (명)	(%)		
농업	1,280	106	1,386	1.2		농업	1,378	2.3		
수산업	88	15	103	0.1		수산업	118	0.2		
광업	514	6	520	0.4		광업	287	0.5		
공업	66,366	10,907	77,273	65.4 (100.0)		공업				
금속	20,845	1,544	22,389	18.9 (29.0)	鐵精鍊業 및 材料品製造業	4,072	1,027	鑄物師, 鑄造工	1,027	
					銑銑鑄物業					3,244
기계	14,812	629	15,441	13.1 (20.0)	볼트, 너트, 座金 및 리벳製造業	1,984	978	프레스工	978	
					金屬板製品製造業					1,828
기구	14,812	629	15,441	13.1 (20.0)	기타 金屬製品製造加工業	1,779	882	鍍金工, 着色工	882	
					建築用 및 家具用 金物製造業					1,584
화학	6,364	964	7,328	6.2 (9.5)	火造(鍛冶)業	912	841	壓延工, 伸張工	841	
					切削研磨用 金屬工作機械製造業					2,099
가스	194	3	197	0.2 (0.3)	工具製造業	1,368	1,502	고무成型工	1,502	
					電氣機械器具製造業					1,187
전기 및 수도	149	2	151	0.1	銃砲·彈丸, 兵器類製造業	1,059	908	化學的 工程 중사	908	
					鋼船製造業					876
오염 및 토석업	5,792	1,168	6,960	5.9 (9.0)	自動車製造業	779	1,617	硝子成型工, 加工工	1,617	
					고무製品製造業					1,491
방직	7,159	4,544	11,703	9.9 (15.1)	섬물로이(트)製品製造業	1,290	2,374	노무자	2,374	
					유리 및 유리製品製造業					5,150
제재 및 목제품	2,218	204	2,422	2.0 (3.1)	裁縫業	4,664	1,026	裁斷工, 裁縫工	2,374	
					메리야스製品製造業					1,040
					메리야스素地編立業	810	781	染色工, 捺染工	1,026	
							2,001	緋工, 組工	781	
								제재 및 목제품	3.4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산업	(%)	총수(명)	
공업	식료품	974	1,107	0.9	(1.4)		신용품	871	1.5	
	인쇄 및 제본	640	84	724	0.6	(0.9)	인쇄 및 제본	1,397	2.4	
	기타	7,219	1,632	8,851	7.5	(11.5)	공업	2,813	4.8	
토목건축	12,472	33	12,505	10.6		토목건축	7,042	11.9	4,253 2,275	
상업						古物商				1,351
		13,184	1,173	14,357	12.1	蔬菜類販賣業	3,182			965
						鐵材販賣業	968			
						新聞發行販賣業	904	8.3	4,915	
교통업						기타 物品販賣業	884			946
		7,322	55	7,377	6.2	기타 陸上運輸業	817			2,315
공무·자유업						貨物自動車運送業	3,099			1,019
		2,847	105	2,952	2.5		1,895		4,725	8.0
가사업										1,016
		126	353	479	0.4				2,383	4.0
기타 산업										807
		1,166	111	1,277	1.1				336	0.6
유업자 계	105,365	12,864	118,229	100.0					59,135	100.0
공무·자유업							공무, 자유업		2,383	4.0
가사업							가사업		336	0.6
기타 산업							기타		4,154	7.0
유업자 계							유업자 계		59,135	100.0

주: 1) 1940년의 산업 소분류는 상위 30위까지, 1930년의 직업 소분류는 상위 20위까지 표기했다.  
 단, 1940년의 산업 소분류 항목에서 '산업 불명'은 상위 30위 안에 있어도 제외했다.  
 2) 1930년의 산업소분류는 1940년과의 비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  
 기계기구공업에 '精巧공업', 범직공업에 '被服 및 身裝品 제조업', 기타 공업에 '皮革, 骨, 角 제조업'을 포함  
 토목건축에는 기타 유업자에 포함되었던 日傭을 추가  
 상업에서 '浴場業主, 美容院', '理髮師, 髮結, 美容師'를 제외.  
 공무·자유업에 '浴場業主, 美容院', '理髮師, 髮結, 美容師', '정소부'를 추가.  
 기타 유업자에서 日傭과 정소부를 제외.  
 3) 紙제품 제조는 1930년에는 '인쇄 및 제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1940년에는 기타 공업에 포함됨.  
 출처: 「昭和15年國勢調査統計原票」, 「昭和五年國勢調査報告」.

〈표 4〉 도쿄부의 재일조선인 업종별 취업구조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산업	(%)	총수(명)
농업	257	28	285	0.7					256
수산업	29	83	112	0.3					36
광업	426	24	450	1.1	土石採取業	398			861
공업	16,414	1,454	17,868	42.6 (100.0)				24.0	5,446
	3,451	92	3,543	8.4 (19.8)	金屬板製品製造業	534			
금속					鍍精鍊業 및 材料品製造業	523			
					電球製造業	575			
					電氣機械器具製造業	523			
기계	5,059	305	5,364	12.8 (30.0)	工具製造業	434			1,508
기구					航空機部分品 및 附屬品製造業	416			
					銃砲·彈丸, 兵器類製造業	327			
					切削用磨用金屬工作機械製造業	309			
					無線 및 有線通信機械器具製造業	308			
화학	2,016	149	2,165	5.2 (12.1)	고무製品製造業	412			438
	40	2	42	0.1 (0.2)	製菓業	328			
가스									
전기 및 수도	124	1	125	0.3 (0.7)					
요업 및 토석업	1,216	75	1,291	3.1 (7.2)	유리 및 유리製品製造業	954			829
방직	1,380	449	1,829	4.4 (10.2)	裁縫業	924			1,179
제재 및 목제품	317	12	329	0.8 (1.8)					
식료품	367	50	417	1.0 (2.3)					
인쇄 및 제본	544	63	607	1.4 (3.4)	印刷業	455			475
기타	1,900	256	2,156	5.1 (12.1)	革靴製造業	430			414
					草履, 爪革類製造業	360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총수(명)	산업	총수(명)	(%)	직업	총수(명)	
토목건축	3,475	23	3,498	8.3		토목건축	8,934	39.4	土工 日傭 道路工夫 土木建築業主, 請 負業主	5,215 2,924 214 146	
상업	11,951	662	12,613	30.0		新聞發行販売業 古物商 料理店, 飲食店業 鐵材, 鋼材販売業 기타 金属材料販売業 牛乳販売業	3,495 3,394 672 630 507 472		店員, 売子 露店商人, 行商人, 呼 売商人 物品販売業主	576 570 563	
교통업	3,508	51	3,559	8.5		貨物自動車運送業 旅客自動車運送業 その他の陸上運輸業	1,142 792 768		配達夫 自動車運転手 仲仕, 荷扱夫, 運搬夫	1,078 669 526	
공무·자유업	2,024	142	2,166	5.2		清掃業 地方事務	698 319		공무, 자유업 掃除夫	515	
가사업	148	332	480	1.1					가사업	142	
기타 산업	895	50	945	2.3					기타 유업자	998	
유업자 계	39,127	2,849	41,976	100.0					유업계	22,695	
										100.0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

〈표 5〉 호고현의 재일조선인 업종별 취업구조

		1940년				1930년				
산업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총수 (명)	산업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	(%)	직업
농업	629	72	701	1.7	189	搾乳業	610	4.0	作男/作女	225
	23	2	25	0.1			수산업	27	0.2	기타 農業労働者
광업	1,249	54	1,303	3.1	646	土石採取業 金屬鉱業	206	1.3		
	12,346	2,355	14,701	35.0 (100.0)			공업	4,729	30.8	
금속	3,359	76	3,435	8.2 (23.4)	1,444	鉄精鍊業 및 材料品製造業 鋳鉄鑄物業 金屬板製品製造業				
	2,593	58	2,651	6.3 (18.0)			금속·기계기구	532	3.5	
화학	2,253	550	2,803	6.7 (19.1)	835	鋼胎製造業 銃砲·彈丸·兵器類製造業 고무製品製造業 鉱物質 및 配合料製造業 상장製造業				
	60	0	60	0.1 (0.4)			화학	1,382	9.0	護謄成型工 化学的 工程 중사 노무자
전기 및 수도	240	0	240	0.6 (1.6)						
	974	123	1,097	2.6 (7.5)			가스·전기	19	0.1	
요업 및 토석업	1,113	1,139	2,252	5.4 (15.3)	384	유리 및 유리製品製造業 煉瓦 및 耐火物製造業 裁縫業 綿織物製造業 기타 紡織品製造加工業 絹糸紡織業	170	1.1	요업 및 토석업	
	583	85	668	1.6 (4.5)			공업	1,572	10.3	精紡工 總繰工, 糸返工 粗紡工 機織工
섬포품	464	123	587	1.4 (4.0)	196	製材業 其他 製材業	303	2.0	기타 木, 竹, 草, 蓆 類 제조 중사자	133
	92	8	100	0.2 (0.7)			섬포품	232	1.5	
기타	615	193	808	1.9 (5.5)			126	0.8	인쇄 및 제본	
							기타	393	2.6	荷造工, 発送工, 包装工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
토목건축	12,379	32	12,411	29.6	토목건축	4,867	31.7
상업	5,044	808	5,852	13.9	古物商 料理店·飲食店業 蔬菜類販賣業 기타 物品販賣業	2,325 575 268 192	8.8
교통업	4,696	23	4,719	11.2	기타 陸上運輸業 貨物自動車運送業 船舶運輸業 小運送業	2,876 576 464 383	13.1
공무·자유업	798	40	838	2.0	浴場業	370	3.4
가사업	65	130	195	0.5	家事業	195	0.8
기타 산업	1,155	78	1,233	2.9	기타 유업자	904	5.9
유업 계	38,384	3,594	41,978	100.0	유업 계	15,335	100.0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
제재 및 목제품	1,184	133	1,317	4.4	제재 및 목제품	777	3.6
공업	213	120	333	1.1	공업	356	1.6
식료품	40	7	47	0.2	식료품	168	0.8
인쇄 및 제본	593	260	853	2.9	인쇄 및 제본	451	2.1
기타	3,873	16	3,889	13.0	기타	6,100	28.2
토목건축	4,401	586	4,987	16.7	토목건축	1,070	4.9
상업	2,630	10	2,640	8.8	상업	1,719	7.9
교통업	545	155	700	2.3	교통업	473	2.2
공무·자유업	18	70	88	0.3	공무·자유업	39	0.2
기타 산업	436	49	485	1.6	기타 산업	565	2.6
유업 계	24,276	5,584	29,860	100.0	유업 계	21,657	100.0
총계	45,781	1,152	46,933		총계	45,781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

〈표 7〉 교토부의 재일조선인 업종별 취업구조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산업	(%)	직업	총수(명)	
농업					稻作	304	농업		作男作女 秋夫 畜産勞務者	267 214	
수산업	50	0	50	0.2			수산업	2	0.0		
광업	1,134	10	1,144	4.5	金屬鋳業 土石採取業	614 421	광업	544	3.1	土石採取夫	490
공업	8,478	1,952	10,430	41.1	(100.0)		공업	6,315	36.4		
	638	67	705	2.8	(6.8)						
금속·기계 기구	761	46	807	3.2	(7.7)	銃砲·彈丸, 兵器類製造業 電氣機械器具製造業	164 143	659	3.8		
화학	553	64	617	2.4	(5.9)	研磨材料 및 研磨用品製造業	213	90	0.5		
가스	48	1	49	0.2	(0.5)						
전기 및 수도	45	0	45	0.2	(0.4)			31	0.2		
요업 및 토석업	487	61	548	2.2	(5.3)	陶磁器製造業 石工品製造業	182 173	212	1.2	요업 및 토석업	
						기타 染色業 純絹織物製造業 機械染色業 精練, 漂白 및 整理業 無地染 및 絞染業 裁縫業 絹然糸業 洗張洗濯業 交織人造絹織物製造業 純絹織物製造業	1,483 970 750 596 489 345 326 289 209 197			染色工, 捺染工 機織工 捺糸工 漂白工, 精練工 洗張織, 洗濯職	1,969 720 453 327 164
방직	4,924	1,529	6,453	25.4	(61.9)			4,510	26.0	방직	
제재 및 목제품	433	9	442	1.7	(4.2)	製材業	262	210	1.2	제재 및 목제품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총수(명)	산업	총수(명)	(%)	직업	총수(명)	
공업	식료품	182	51	233	0.9	(2.2)	신로품	213	1.2		
	인쇄 및 제본	60	15	75	0.3	(0.7)	인쇄 및 제본	240	1.4		
	기타	347	109	456	1.8	(4.4)	기타	150	0.9		
	토목건축	5,699	19	5,718	22.5		토목건축	5,141	29.7	土工日傭	
상업		3,975	396	4,371	17.2		古物商	1,861		露店商人, 行商人, 呼壳商人	
							料理店, 飲食店業	288	9.5	物品販壳業主	
							新聞發行販壳業	236			
							蔬菜類販壳業	227			
교통업		1,130	3	1,133	4.5		기타 陸上運輸業	374		配達夫	
							貨物自動車運送業	350	6.0	仲仕, 荷拔夫	
							旅客自動車運送業	143		運搬夫	
공무·자유업		911	38	949	3.7		清掃業	548	2.7	荷車挽, 馬方	
							家事業	147		自動車運転手	
기타 산업		28	119	147	0.6		家事業	247	1.4	掃除夫	
		579	84	663	2.6		기타 유업자	1,107	6.4	主人, 世帯에 있는 家事使用人	
유업 계	22,671	2,727	25,398	100.0		유업 계	17,331	100.0	雜役夫, 店員, 壳子	4,035 688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



1940년						195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산업	(%)	직업	총수(명)	
토목건축	5,225	12	5,237	40.0	土木建築業	5237	토목건축	59.5	土工 日備 土木建築業主 請 負業主	3,337 1,006 102	
상업	1,954	159	2,113	16.1	古物商 시멘트, 煉瓦, 瓦, 土管, 土石販売業 鉄材, 鋼材販売業 料理店, 飲食店業 新聞發行販売業 기타 金属材料販売業	1074 119 115 107 77 71	상업	7.6	露店商人, 行商人, 叩売商人 物品販売業主 店員, 売子 旅館, 下宿屋, 料理 店, 飲食店などの女 中, 給仕人 仲買人, 周旋人	145 121 83 80 49	
교통업	1,137	21	1,158	8.8	기타 陸上運輸業 貨物自動車運送業 船舶運輸業 小運送業 鐵道, 軌道業	521 216 145 128 46	교통업	9.8	仲仕, 荷拔夫, 運搬夫 配達夫 荷車挽 馬方	484 62 50	
공무·자유업	261	25	286	2.2	清掃業 地方事務	117 66	공무·자유업	1.4			
가사업	148	332	480	3.7	家事業	103	가사업	0.7			
기타 산업	895	50	945	7.2			기타 유업자	4.8	継役夫 기타 有職者	312 43	
유업 계	12,463	644	13,107	100.0			유업 계	100.0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

〈표 9〉 후쿠오카현의 재일조선인 업종별 취업구조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산업	(%)	총수(명)
농업	1,508	477	1,985	3.8	稻作 炭煤業	1,448 206	농업	7.4	1,506
수산업	393	27	420	0.8	漁勞採藻業	416	수산업	0.2	46
광업	18,615	929	19,544	37.3	石炭鋳業 土石採取業 金屬鋳業	18,387 1,029 126	광업	32.0	6,508
공업	6,504	568	7,072	13.5	(100.0)	1,597	공업	9.0	1,826
금속	1,969	37	2,006	3.8	(28.4)	鐵鑄業 및 材料品製造業	금속· 기계기구	1.0	210
기계 기구	527	15	542	1.0	(7.7)		화학	0.9	186
화학	853	50	903	1.7	(12.8)	코크스製造業	가스·전기	0.1	23
가스	31	1	32	0.1	(0.5)		요업 및 토석업	1.7	338
전기 및 수도	136	2	138	0.3	(2.0)	電氣業	방직	2.3	459
요업 및 토석업	1,696	153	1,849	3.5	(26.1)	시멘트製造業 유리 및 유리製品製造業 기타 土石工業	제재 및 목제품	0.7	142
방직	297	131	428	0.8	(6.1)	純綿織物製造業	식료품	1.3	274
제재 및 목제품	233	6	239	0.5	(3.4)	製材業	인쇄 및 제본	0.4	78
식료품	373	43	416	0.8	(5.9)		기타	0.6	116
인쇄 및 제본	86	2	88	0.2	(1.2)				
기타	303	128	431	0.8	(6.1)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산업	(%)	총수	직업	총수(명)
토목건축	5,532	106	5,638	10.8			토목건축	21.3	4,329	日傭 土工	2,518 1,569
상업	4,473	850	5,323	10.2	古物商 料理店·飲食店業 石炭, 코크스類販売業 藥品, 衛生材料販売業 旅館, 下宿業 木材, 竹材販売業 鮮魚介類販売業 菓子, 醬類販売業	1,880 755 213 166 151 137 132 129	상업	9.8	1,987	露店商人, 行商人, 呼売商人 店員, 売子 旅館, 下宿屋, 料理店, 飲食店など の女中, 給仕人 物品販売業主 料理人 旅館, 料理店, 飲食 店, 貸席業の番頭客 引	442 411 294 212 165 162
교통업	7,817	298	8,115	15.5	기타 陸上運輸業 船舶運輸業 小運送業 貨物自動車運送業 清掃業 地方事務	6,058 1,019 519 247	교통업	13.2	2,681	仲仕, 荷扱夫, 運搬 夫 舵夫, 水夫	2,010 142
공무·자유업	594	72	666	1.3		202 132	공무·자유업	1.0	213		
가사업	149	458	607	1.2	家事業	607	가사업	1.8	367	主人世帯에 있는 家事使用人	295
기타 산업	2,737	224	2,961	5.7			기타 유업자	4.4	899	雜役夫	870
유업 계	48,322	4,009	52,331	100.0			유업 계	100.0	20,362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

〈표 10〉 홋카이도의 재일조선인 업종별 취업구조

		1940년				1930년					
산업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총수 (명)	산업	산업 대분류		총수 (명)	직업 소분류	총수 (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산업			
농업					841	稻作					
					730	森林業					
					574	豆作					
					436	藥草栽培					
		1,050	3,525	11.7	299	薯作			2,874	농업	2,874
	2,475				168	甘藷, 馬鈴薯作					1,269
					160	炭燒業					1,038
					140	雜穀作					164
					119	기타 農耕業					137
					27	蔬菜栽培					93
수산업	153	9	162	0.5	97	漁勞採藻業			287	수산업	287
					65	母船式漁業					228
광업					12,200	石炭鑛業					1,361
	15,580	88	15,668	51.9	2,865	金屬鑛業					93
					257	土石採取業			1,755	採炭夫	1,755
					200	기타 採鑛業					64
					143	砂礫採取業					61
공업	377	31	408	1.4					173	공업	173
	42	1	43	0.1							
	89	1	90	0.3							
	21	1	22	0.1							
	1	0	1	0.0							
	13	0	13	0.0							
	63	0	63	0.2	29	유리 및 유리製品製造業					
	17	11	28	0.1							

1940년				1930년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대분류		산업 소분류	
산업	남(명)	여(명)	총수(명)	(%)	산업	총수(명)	(%)
공업	제재 및 목제품	59	2	61	0.2	제재 및 목제품	
	식품	26	6	32	0.1	식품	213
	인쇄 및 제본	4	1	5	0.0	인쇄 및 제본	240
	기타	42	8	50	0.2	기타	150
						공업	
토목건축	7,353	64	7,417	24.6	토목건축	4,778	41.9
상업					古物商	723	
					料理店·飲食店業	633	
	1,201	552	1,753	5.8	各種物品販賣業	75	
					旅館·下宿業	48	
교통업					勞務供給業	36	
					船舶運輸業	245	
	521	9	530	1.8	小運送業	122	
					기타 陸上運輸業	85	
공무·자유업					鐵道·軌道業	48	
	43	9	52	0.2	공무·자유업	47	0.4
	12	59	71	0.2	가사업	39	0.3
	569	49	618	2.0	기타 유업자	69	0.6
유업 계	28,284	1,920	30,204	100.0	유업 계	11,414	100.0

\* 주와 출처는 표3과 동일